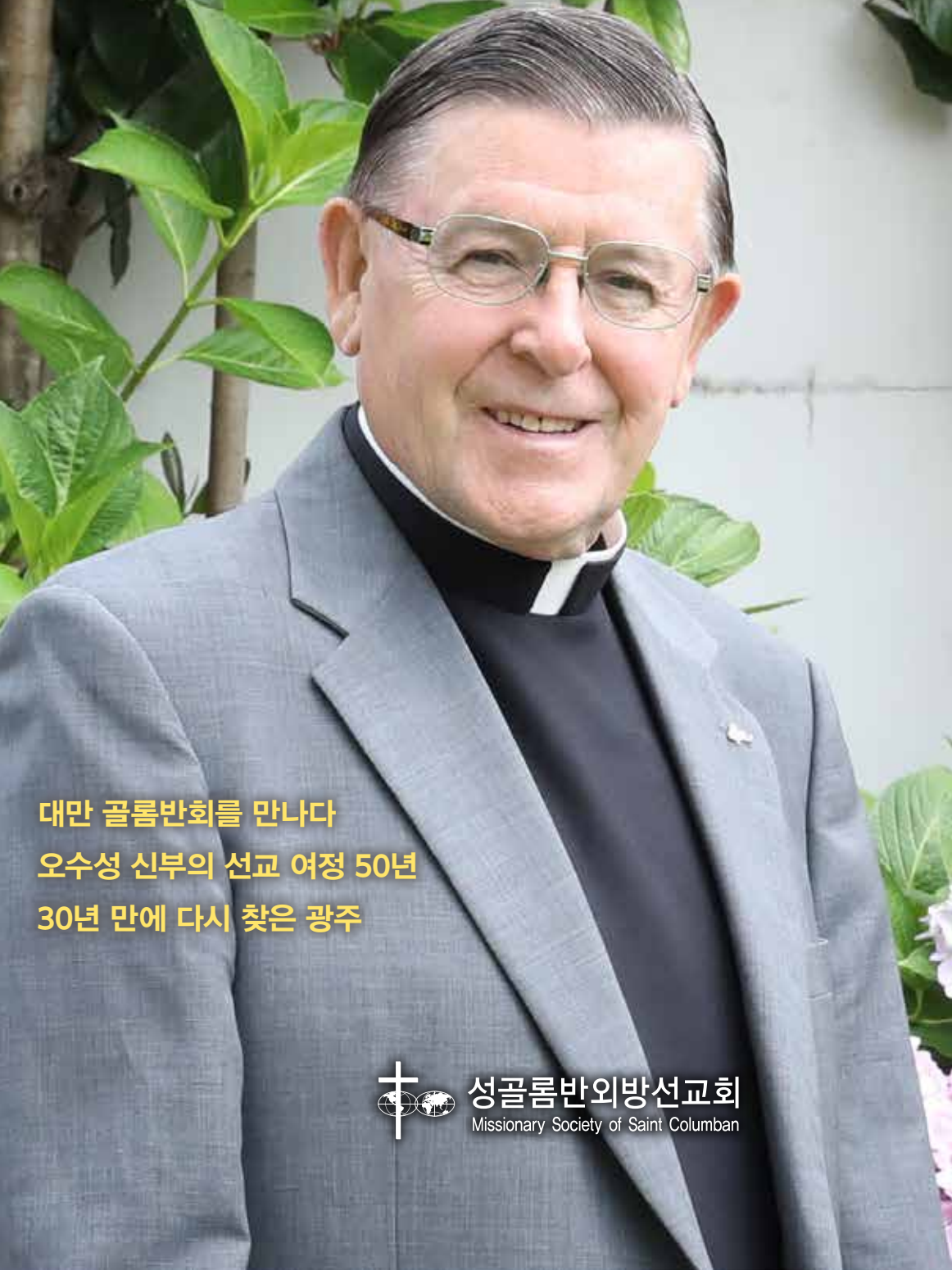


골롬반 선교

2019년 가을호 vol.112



대만 골롬반회를 만나다
오수성 신부의 선교 여정 50년
30년 만에 다시 찾은 광주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19년 가을호 vol.112

편집실 Tel. 02-927-2705
E-mail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E-mail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마음을 여는 글 03 대화, 선교사가 되는 지름길 임영준 에이몬 신부

대만 골롬반회 04 대만 골롬반회를 만나다 편집실

08 각자각자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

10 만만 마레아 평신도선교사

골롬반 초대석 12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장 팀 멀로이 신부
김종근 도밍고 신부

함께하는 여정 14 그리운 골롬반 선교사 백태열 요한 후원회원

금경축 16 오수성 신부의 선교 여정 50년 편집실

지원사제 18 반석 위의 집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신부(서울대교구)

그림 묵상 20 우정과 가을밤 안재선 제이슨 신부

신학원 22 네그로스섬에서 찾은 보물

심홍석 암브로시오 신학생

다시 읽는 선교잡지 24 30년 만에 다시 찾은 광주

매 제랄드 신부 · 노아곱 신부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표지

올해 금경축을 맞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오수성 미카엘 신부.
1969년 12월 고향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으로 파견되어 49년 째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그네
Peregrinatio pro Christo



대화, 선교사가 되는 지름길



임영준 에이몬 신부 · 한국지부장

세례 덕분에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살 책임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선교사가 될까 말까 망설임 여유는 없습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선교사로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루카 복음에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18,22).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소비사회에서는 경제적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화려한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외모 또한 중요하다고 여기므로 자신의 모습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끝없이 가꾸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자기가 편안한 생활을 하도록 한 다음에, 남는 돈과 필요 없는 물건을 타인들에게 주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으므로 이상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면, 늘 우리 노력은 부족하며 가르침의 목적지까지 가기엔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름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지름길이라고 해서 결코 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지름길은 더 빠르지만, 힘이 더 들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하여 지름길로 올라가면 더 빨리 도착하겠지만, 땀을 더 많이 흘릴 것입니다. 빠른 것과 쉬운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기가 힘들고, 복잡하며 더 오래 걸릴 때 우리가 가야 할 지름길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의 약 90%는 상대방의 말과 의미를 듣고 나머지 10%는 나의 반응을 나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웃과 타인과 말을 할 때, 말만 하지 말고 ‘대화’를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대화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복잡하고 경쟁하느라 힘든 세상에서 다른 이의 고민, 희망, 아픔과 기쁨을 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 바쁘다, 어렵다는 핑계를 댈 수 없겠지요! 내일, 다음 달, 내년부터 선교사가 되겠다는 말 대신 오늘부터 자기 바로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눠 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대만 골롬반회를 만나다

편집실

골롬반회 창립 100주년 세계 총회가 작년에 대만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은 우리 회가 대만에서 본격적으로 선교한 지 40년이 된 해였기에 개최 장소는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각 나라 대표들

은 대만에서 활동하는 골롬반 선교사들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현재와 미래 골롬반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골롬반회는 선교사의 수나 조직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배시현 선교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타레몬 신부



???

규모는 작지만, 7개 나라(뉴질랜드, 미국, 페루, 피지, 필리핀, 한국, 호주)에서 파견된 남녀 평신도선교사와 성직자, 신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 그룹입니다. 평신도와 사제가 동등한 관계 안에서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로 격의 없이 삶을 나누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롬반회는 1978년부터 41년 동안 8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대만에 파견하였습니다. 처음은 대부분 아일랜드인 사제였지만, 점차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교



장애인센터에서 활동하는 필리핀 출신의 레이나 선교사



김선희 선교사가 구치소를 방문하여 수감자들을 위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

사들로 구성되면서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 골롬반회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견된 지역으로 현재 신학생 1명, 평신도선교사 5명, 사제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종교는 인구의 35%가 불교, 33%가 도교이며, 천주교는 1.3%~2% 정도라고 합니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대만인, 본토 중국인(외성인), 원주민 등이 저마다의 고유한 언어와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입니다. 대만 천주교는 방인

사제와 성소자의 수가 매우 적어서 외국인 교구사제, 수도회와 선교회 사제들이 많은 지역을 맡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만 교회는 우리 회에 신주교구에서 우선적으로 사목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신주교구는 수도 타이베이에 인접한 남쪽 지역을 관할하는 두 번째로 큰 교구이며, 골롬반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그 일원으로서 본당사목뿐 아니라,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 원주민 사목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기꺼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회에는 노동과 결혼을 이유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골롬반회는 오래전부터 현지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하다가 1989년에 닐 메길 신부가 추방당하기도 했지만, 멈추지 않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베트남계 호주 출신인 피터 홍 신부는 대만 사람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 모두에게 유리하도록 노동법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만 정부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골롬반회는 교구 내 세 곳에 이주민 센터를 설립하고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필리핀 출신 쉼와 조안 평신도선교사가 이주민 사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임금 체불 등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



HIV/AIDS 환자를 위한 센터에서 활동하는 이수빈 선교사

고, 폭력과 협박을 피하여 숨어다니는 이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며 어려움에 처한 결혼 이주 여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류선종(안드레아) 신부와 석진욱(안토니오) 신부도 이주민들이 자기 나라말로 미사와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만 골롬반회는 원주민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대만 땅에서 살아왔던 원주민들은 주로 도시가 아닌, 높은 산 위에 터전을 마련하여 부족끼리 모여 삽니다. 대만 내 다른 민족에 비해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아 자존감도 낮은 편이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도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만 사회에서 더 좋은 직장을 얻거나 진학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는 원주민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원주민 마

음이 있는 산에 올라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본당 공동체를 돌보고, 부족 아동들을 위한 돌봄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대만 천주교 신자 50% 이상이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은 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주민 사회 안에서 그들의 문화 전통, 부족 언어를 지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 골롬반회는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복돋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시현(소화 데레사) 선교사, 피지 출신 타레몬 신부, 뉴질랜드인 라리 신부가 한 팀을 이루어 원주민 마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활동했었던 제리 닐런(한국 이름 나경식) 신부는 대만에 파견되어 1990년 지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성가정 특수교육 장애인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필리핀 출신 레이나 선교사가 이 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김정웅(요한 보스코) 선교사도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과 만나고 있고 석진욱 신부도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는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세계 총회에서 만났을 때(2018년)





(왼쪽부터) 쉐 선교사, 석진욱 신부, 조안 선교사

대만 골롬반 선교사들은 본당사목, 이주민, 원주민,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 외에도 사회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에 끼여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정 시설에 수감된 청소년들을 만나왔던 김선희 선교사는 신주교구 청소년사목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수빈(마틸다) 선교사가 HIV/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위한 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출신으로 30년 동안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 맥스위니 신부는 중독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조 신부는 다른 종교인 또는 종교가 없는 이들의 영적 지도를 하며 이들과 함께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1월에 파견된 이지영(크리스타나), 선교 실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문성윤(레오) 신학생, 페루에서 파견된 살루스티노 신부도 대만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대만 사회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만 골롬반회의 대표(코디네이터)는 사제가 해왔지만, 2012년에 처음으로 평신도가 코디네이터를 맡게 된 데 이어 현재는 작년에 대표로 선출된 필리핀 출신의 쉐 평신도선교사가 미국인 조 맥스위니 신부와 한국인 류선중 신부와 함께 리더십 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창립 100주년 감사 미사에 참석한 대만의 주교는 사제와 평신도가 동등한 관계 안에서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는 골롬반회의 모습이 지역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며,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대의 정신, 존중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실천하는 대만 골롬반회의 삶의 방식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교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 골롬반회의 모습을 통하여 점차 다문화, 다양화되는 세상 안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젊고 역동적인 골롬반회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

క్క가క్క가

류선종 안드레아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18년 2월에 사제품을 받고 그해 10월 대만에 파견되었다. 현재 신주교구 터우편(頭份) 본당에서 주임신부로 일하고 있으며, 이주민 사목에도 함께하고 있다.

“క్క가క్క가”

흡사 누가 꺽꺽대며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까치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이곳 본당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소리는 제가 본당 어르신들을 차에 모시고 운전할 때, 앞에 가는 차가 굼벵이처럼 기어가면 농담 삼아 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짐작이 되시나요? 네, 바로 ‘빨리빨리’라는 뜻의 ‘క్క가어’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신자분들은 “아니 신부님, 대체 그 말은 어디서 들었어요?” 하며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대만의 작은 도시 터우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냥 중국 사람들이 사는 곳 아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대만은 기차에서 다섯 가지가 넘는 언어로 안내 방송을 할 만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긴 역사 안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존하며 융화된 나라입니다. 크게 나누어 봤

터우편 성당 신자들과 함께





레지오 단원들과 회합 중인 류선종 신부

을 때 ‘원주민,’ ‘객가인,’ ‘민난인,’ 훗날 장개석과 함께 대만에 들어온 ‘외성인’들이 ‘같이 또 다르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대만입니다.

터우편은 객가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 본당 신자 대부분이 객가인입니다. 물론 원주민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본당 신부로서 이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분들도 외국에서 온 신부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 주고 존중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루는 우리 본당의 원주민 할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자꾸 할머니께서 “아리가또, 아리가또(일본말: 감사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자꾸 일본어를 하시냐?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가정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일본어로 표현하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일제가 대만을 지배할 때 받은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언젠는 가정 방문을 갔는데, 신자 한 분이 “신부님, 오늘은 객가어로 기도를 해도 될까요?”라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제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더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아주 편하게 성모송을 다 같이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객가인이었습니다.

“조상의 논밭은 팔 수 있어도 조상의 말(言)은 팔 수

없다.”는 객가인 속담이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오묘하고 알쏭달쏭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야 그 사람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한 하느님을 함께 찬미하는 것을 목격하고 동참하며 격려하는 것은 선교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물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 대만에 왔을 때 마트에서 닭고기를 사고 싶었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점원에게 우스꽝스럽게 닭 흉내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흥미롭고 보람되기도 합니다. 다른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대만에서도 ‘객가어,’ ‘민난어,’ ‘원주민 부족어’ 같은 다양한 말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40대 젊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겠지만, 다만 사회 내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오랫동안 보존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더불어 저도 “꺅꺅꺅꺅(빨리)” 이 나라 언어를 더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만(慢慢, 천천히)

마레아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필리핀에서 파견한
23번째 팀(PH 23)으로 2016년에 대만으로 파견되어 3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 본국에서 휴가 및 식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만만(慢慢)”은 중국어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만에서 외출을 할 때면 이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도로에서도 이 단어를 자주 볼 수 있고, 길을 따라 걸을 때면 “만만 조우(慢慢走, 천천히 걸으세요)”라는 말이 들립니다.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만만 라이(慢慢來, 천천히 하세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만만 츠(慢慢吃, 천천히 드세요), 또는 “만만 허(慢慢喝, 천천히 마세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같은 단어가 제 주위를 계속 맴도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만만”, 이 단어는 삶의 속도를 천천히 낮추라는 하느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제가 어떻게 걷는지, 어떤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지 또는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발목을 다치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대만 신주시의 소년원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만나 영어 수업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공원을 가로질러 걷는 동안 저는 다음 사목지인 이주 노동자 쉼터에서 할 활동을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만 중심을 잃고 길 위에서 넘어졌고, 오른쪽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그제야 땅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걸을 때 정신을 딴 곳에 두다 보니, 땅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한 거지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근처 벤치에 앉아 주물러 봤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는데도 통증은 2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발목을 다쳤습니다. 회의가 있어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신학교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 조명 불이 어두워서 바닥에 있는 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는 턱에 걸려 넘어졌고, 오른쪽 다리에서 힘이 쑥 빠져나가 감각이 없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오른쪽 발목이 완전히 낫기도 전에 그 발로 계속 걷거나 뛰어다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치료에 들어갔고, 양약과 중국 전통 약을 먹었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제게 일을 잠시 멈추고, 다친 발을 좀 돌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저는 5일간 병가를 냈지만, 그동안에도 충분히 쉬지 못하고, 매일



이주민·이민자로 구성된 신주교좌성당의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마레아 선교사(가운데 갈색 외투)는 이들의 영적지도를 담당했다

저녁 쉼터를 찾아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로 발목을 빼고 난 후에야 저는 휴가를 내고 다리를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못 가요, 안 돼요.”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흘 동안 집에서 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못 했던 일을 하였습니다. 요리하고, 책을 읽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음악을 듣는가 하면 메신저로 필리핀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고,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도 하였습니다. 명상하고 글을 쓰기도 했지요. 소소하지만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을 보

내면서, 그동안 주어진 일에 집중하느라 바빴고, 정해진 시간에 일을 마치느라 꽤 오랫동안 마음의 여유 없이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먹기,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식별하는 시간 갖기 등등이 선교사에게 참 중요한 일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발목이 접질린 경험을 하고서야 말입니다.

저는 “만만”이라는 단어가 참 고맙습니다. 조금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저에게 말해 주고 있고, “지금 여기”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에 집중하고, 즐길 수 있다면 우리 삶은 한층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장 팀 멀로이 신부

인터뷰 김종근 도밍고 신부 · 본지 편집장



2018년 9월, 창립 100주년 세계 총회에서 선출되었으니 이제 취임 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 총장으로 서 오늘날 골롬반회가 맞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골롬반회는 다문화적, 상호적 생활을 하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골롬반회의 50세 미만 회원을 보면 아일랜드, 미국 등 전통적인 서구 나라 출신 회원은 없고, 칠레, 통가, 페루, 피지, 필리핀, 한국 등에서 회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들은 골롬반회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관심 분야, 가치관,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회는 더욱 풍요로운 선교회가 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제 골롬반회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다양한 민족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한국 회원이 리더로서 미래 골롬반회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모습 또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강승원 신부가 총본부 참사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대만에서 류선종 신부, 미얀마에서는 이제훈 신부, 중국에서 서경희 신부, 페루에서는 김영인 신부가 자신이 속한 지부에서 리더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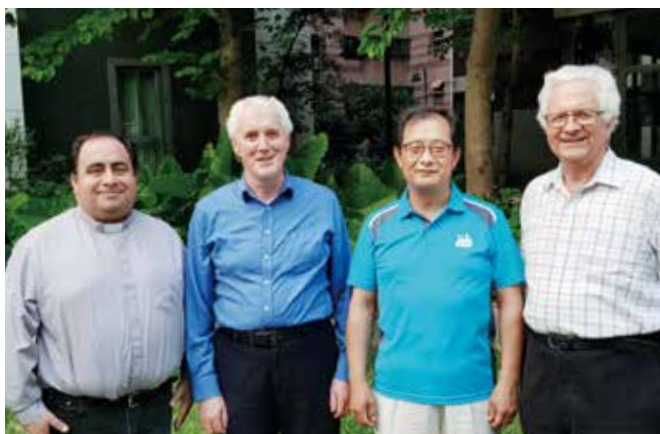
영 카타리나 선교사는 전체 평신도선교사의 리더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인 평신도선교사, 지원사제, 골롬반 회원들이 해외에서 훌륭하게 선교를 해오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은 현지 교회와 골롬반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골롬반회 선교 사명도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을 텐데요.

100년 전 우리 회의 설립 목적은 아주 뚜렷했고 확실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사람들을 신자로 만드는 것이었지요. 과거와 달리 오늘날 우리의 선교는 모든 나라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그리스도교 국가라고 해서 복음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활 방식, 고유한 가치관을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와 닮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반면,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해서 복음화되었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복음화에 대한 개념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사명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선되고 시급한 선교 과제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와 난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는 활동인 ‘종교 간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한가족으로서 지구촌 공동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골롬반의 선교는 민족, 종교, 문화, 가치관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도우며, 신뢰, 투명성, 협력성이라는 가치를 세상에 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과제이지요. 또 하나의 우선하는 선교 사명은 *JPIC입니다. 특히, 환경과 생태 위기는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현실을 알려서, 세상을



2018년 세계 총회에서 선출된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총본부 지도부.
(왼쪽부터) 참사위원 알바로 신부(칠레), 총장 멀로이 신부(아일랜드),
참사위원 강승원 신부(한국), 부총장 브라이언 신부(호주)

바꾸어 가는 데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일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후원회원께 골롬반회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 그곳에 이민 가서 사는 한인 후원회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살았을 때 골롬반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골롬반 선교사들과의 만남은 비록 과거에 있었지만, 그분들은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현재와 미래 골롬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후원회원께서 선교의 동반자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후원을 위하여 여러분은 일상 안에서 크고 작은 희생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후원회원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충장이 되어 더욱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보답하는 마음으로 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골롬반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

*JPIC 정의(Justice), 평화(Peace), 창조질서 보전(Integrity of Creation)

그리운 골롬반 선교사

백태열 요한 후원회원



박 토마 주교(앞줄 가운데)가 춘천교구 효자동성당에서 건진성사 주례를 하였을 때 비서로 수행했던 필자(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골롬반회가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 어언 8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구한 세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수많은 공적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순교한 7명의 골롬반회 사제, 안 파트리치오 몬시뇰, 고 토마스, 고 안토니오, 진 야고보, 라 파트리치오, 손 프란치스코, 오 요한 신부님! 전쟁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한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잊을 수 없

는 숭고한 희생입니다.

한국에서 희생 어린 봉사와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견된 성 골롬반 선교사들이 무려 28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국의 부모 형제를 뒤로하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국 만리 우리나라를 찾아와 하느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 사명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 것을 어찌 감사하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이며 크나큰 은총입니다.

인생은 작은 한 조각이라고 합니다. 저도 강원도 서석 천주교회에서 골롬반회 갈 바오로 신부님을 모시고 2년 동안 전교회장을 했을 때가 1979년으로 잊고 계 같은데,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신오복 안토니오 신부님을 청평 천주교회에서 보필한 6년 만에 신부



청평성당 전교회장(맨 위) 시절, 신오복 신부와 함께

님께서 성 골롬반회 지부장님으로 영전하시는 바람에 아쉬운 작별한 지 34년이 되었습니다. 신오복 신부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신다면서 “은퇴 후 아일랜드 내 고향에 한번 오겠느냐”고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신부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저는 춘천교구청에서 교구장님이셨던 박 토마 주교님 비서로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총 13년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을 보필하면서 교회 일을 하였다는 것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장학생으로 신학원 공부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박 토마 주교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회장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 요한에게 예비자 교리와 견진 교리 교육 그리고 쉬는 신자 가정방문 등을 맡겨 주셔서, 주님의 명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박 토마스 주교님께서 각 본당 견진성사 때나 주교회의 때, 외국 출장일 때를 빼고, 출근하자마자 드린 매일미사에서 주교님의 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저에게 큰 기쁨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이 수난을 겪고, 어렵게 살아갈 때에 ‘주님 사랑’의 손길로 한국 국민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준 성 골롬반 사제들!

아! 어찌 잊을 수 있었습니까. 신부님, 그림습니다. ✠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골롬반 선교사와의 소중한 추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좋은 글과 사진을 보내 주신 백태열 후원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고 보내실 곳

이메일 kormagazine@columban.or.kr

우 편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잡지편집실

문 의 ☎ 02-927-2705



오수성 신부의 선교 여정 50년

편집실

♫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 - 가곡 <보리밭> 중-

오수성 미카엘 신부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노래다.
한 소설 불러주기를 청했으나, 노래 대신 고향 이야기
로 슬쩍 넘어갔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일랜드 고향
부모님의 보리밭에서 형제들과 뛰놀았던 어린 시
절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8남매 중 셋째인 오수성
신부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주일 아침마다 성당까지
4km나 되는 시골길을 아버지 손을 잡고 형제들과 함
께 걷던 기억이 생생하다.

고등학교 졸업반에 올라갈 무렵, 성소에 관해 첫 물
음이 생겼다. 늘 보던 학교 성당의 십자가상이 그날은
새롭게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모습으로 십
자가에 못박혔을까? 나를 위하여 그러셨다면 나는 어
떻게 응답할까? 신부가 될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
었죠. 얼마 후 골롬반 신학교에 축구 시합이 열려서 갔
는데, 거기서 신학생과 신부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매
달 받아보던 골롬반 잡지에서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
으면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1969년
12월, 오수성 신부는 사제품을 받았고, 이듬해 가을,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첫 본당은 제주 한림성당. 한국말이 서툰 데다 어르
신들이 쓰는 제주도의 말(言)은 알아듣기 어려웠다. 처



쌍둥이 형 패트릭과 함께
건진성사를 받았을 때
(오른쪽이 오수성 신부, 1955년)

음에는 말 때문에 실수를 했지만, 차츰 배우고 적응하
면서 신자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다음 발령지인
서울대교구 상봉동성당에 이어 첫 주임으로 인천교구
오정동성당(지금의 삼정동성당)에 갔다. 그곳 신자의 반
은 농사를 지었고, 또 반은 공장에 다녔다. 그래서 그
는 신자들이 성당에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비포장길을 오토바이로 다니
면서 고해성사도 하고 가정방문도 하며,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본당에서 사목할 때 JOC(가
톨릭노동청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
이 성당에 와서 JOC 활동을 하던 청년, 이 마리아를
찾았다. “이 마리아가 있는 곳을 나에게 말하라고 했
어요. 자꾸 묻길래 모른 척하고, 우리 본당 신자인 이
마리아 할머니 댁을 알려줬습니다.”

1978년에 광주 광천동성당에 부임했다. 성당 안에
야간학교를 열고, 형편상 중학교 진학을 못한 이들에
게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그는 광천동에 있을 때 1980
년 5월을 겪었다. “거리에 무장한 군인들과 탱크가 다
니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은 한국전쟁 때보다도 더 무
서웠다고 신자들이 말했습니다. 광주 요한 병원과 모

든 병원에 다친 사람으로 가득했지요.” 당시 외국인들은 광주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골룸반회는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남아있었냐는 질문에 오수성 신부는 되물었다. “주임 신부가 하느님 백성을 떠날 수 있나요?” 광주 학운동성당에서 5년을 더 일한 후 그는 서울로 와야 했다. 부지부장과 지부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광주대교구로 돌아가 목포 대성동, 장성 사거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2003년 9월, 한국지부는 오수성 미카엘 신부에게 선교 교육과 후원 홍보를 맡겼다. 본당을 다니며 골룸반회를 소개하고 선교에 관해 교육하며 후원회원을 초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본당을 찾아가 본당 사제를 만나 방문 허락을 받아야 한다. 때로는 승낙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도 있다. 후원 홍보가 있는 날이면, 주일 마지막 미사까지 짝 찬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먼 지역에 갔을 때는 인근 모텔이나 여관에서 잠을 청할 때도 많다. 일정을 마치고 광주로 돌아오면, 새벽 2~3시에 도착하는 날도 많을 텐데 힘들지는 않은지 물었다. “괜찮아요. 이 일을 많이 좋아했어요. 제가 찾아



젊은 시절의 오수성 미카엘 신부

가는 모든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저를 환영해 주었고, 선교 교육을 할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사제가 되었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신을 부르는 곳에 기꺼이 응답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그이다. “50년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은총을 입어 그동안 아프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저를 사제로 선택하셨을까?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성소는 옛날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뜰 때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닐까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사는 것이 선교사요, 사제로 사는 삶이겠지요.” ✠

◀ 광주 골룸반선교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오수성 신부가 정원에 직접 심은 꽃과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



반석 위의 집

이현규 대건안드레아 신부

서울대교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사제로 2017년 3월 칠레에 파견되었다.
현재 칠레 북쪽 사막 지역에 있는 이키케 교구 예수성심 본당
(Sagrado Corazon de Jesus)에서 사목하며, 다섯 개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

한국을 떠난 지 벌써 2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칠레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하나씩 하나씩 일을 배워 나가고 적응해 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칠레 교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위기의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조가 있었으나, 교회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로 많은 이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몇몇 사제들의 성추문과 몇몇 주교

들이 사건을 무마시켰던 것이 수십 년 만에 드러나면서 다들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작년 통계자료를 보면 70%에 육박하던 신자 수가 10여 년 만에 45%로 떨어졌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80% 가까이 향하던 것이 3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뀌 가는 중이고, 이미 많은 것이 올바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남미 칠레 사막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현규 신부(맨 왼쪽)와 본당 교우들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임에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누구보다 앞장서 교회를 수호하며 헌신하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제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깊은 신심과 겸손, 열정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칠레 신자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을 교회에 남아있게 하는 근본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묻게 되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결국 신앙입니다. 특별히 성사 안에서 하느님을 꾸준히 만났던 이들은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사도 나오지 않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해왔던 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기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이 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마태 7:24-27).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면, 먼저 이웃사랑, 자선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우선하는 실천은 성사생활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며, 하느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성사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왼쪽부터) 필자, 골롬반회 토마스 신부, 함께 자원사제로 파견된 서울대교구 정성훈 신부

그렇게 하느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났던 이들은, 내일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결코 교회를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태풍이 밀려와도 그들의 집은 안전합니다. 결국 가장 기본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실 교회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합니다. 대부분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며, 아름다운 일입니다만 그 기반에 신앙이 없다면, 성사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얼마 가지 못해 무너지고 말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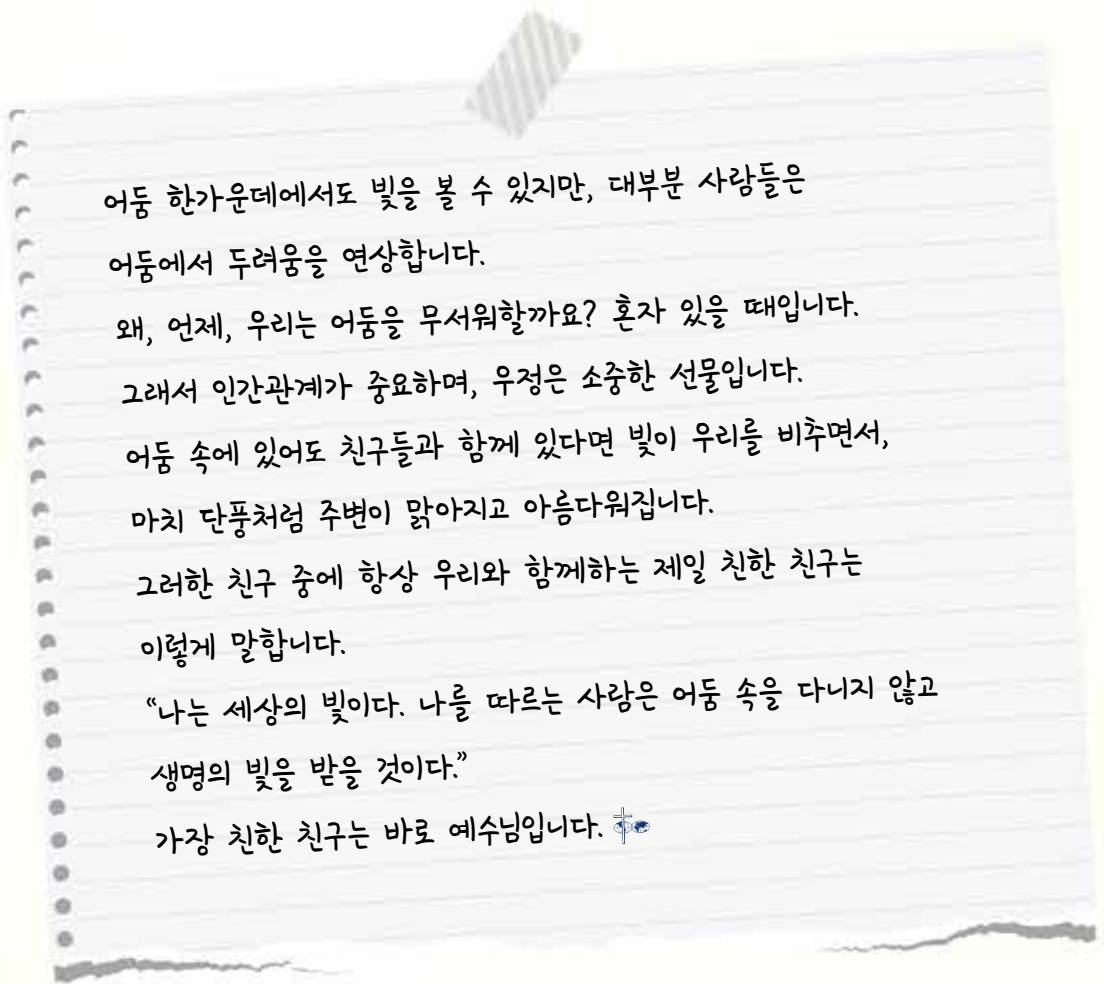
이웃 교회의 어려움에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한국 교회가 풍성한 가치와 인사귀에 묻혀 뿌리를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멀리서 기도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이라고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교회를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길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우정과 가을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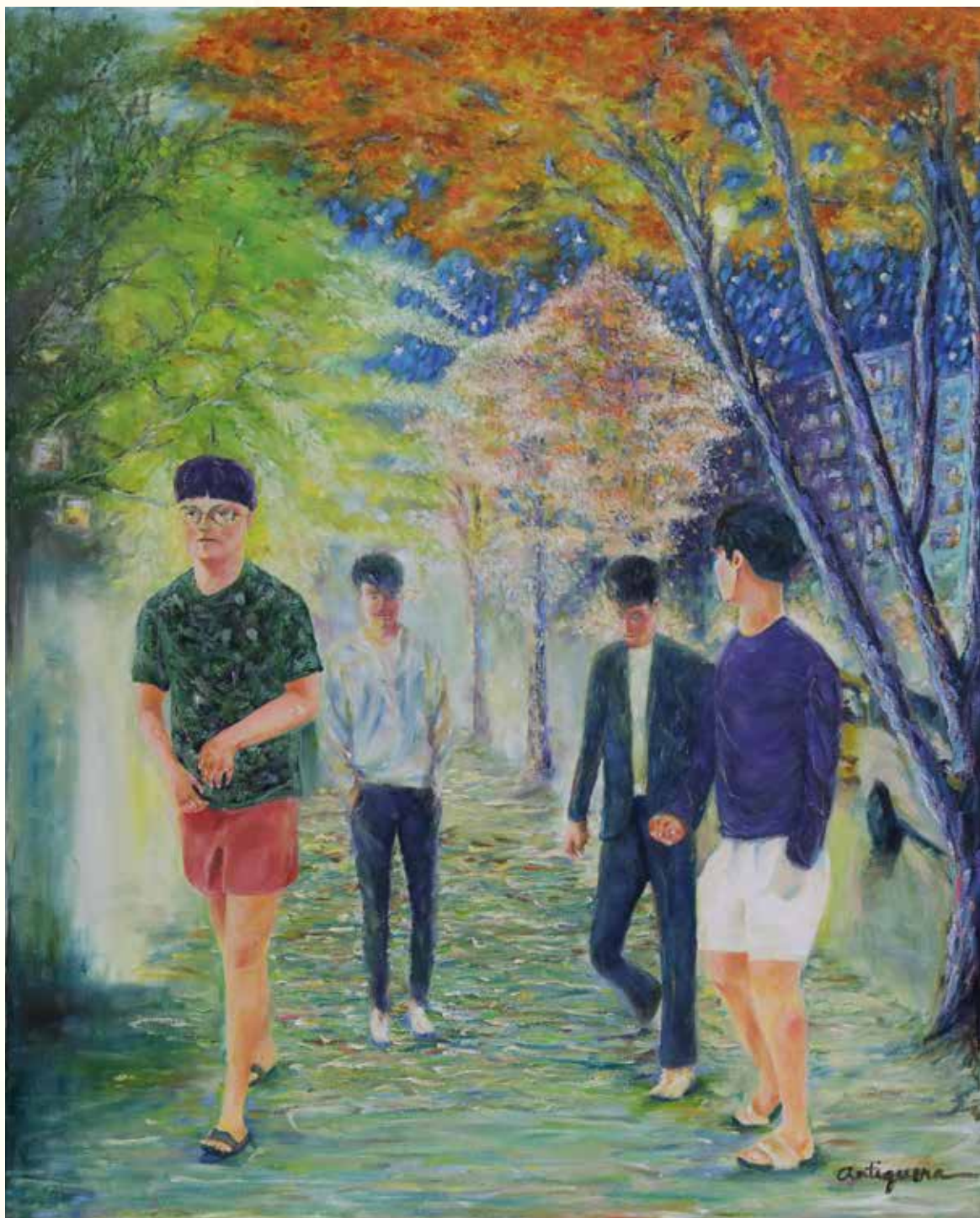
어느 가을밤, 서울의 돈암동 거리

글·그림 안재선 제이슨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필리핀 출신으로 2015년 1월 사제품을 받고
그해 10월 한국에 파견되었다. 현재 예술사목, 평신도선교사 리더십팀,
신학원 참사위원 활동을 하고 있다.



어둠 한가운데에서도 빛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둠에서 두려움을 연상합니다.
왜, 언제, 우리는 어둠을 무서워할까요?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며, 우정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빛이 우리를 비추면서,
마치 단풍처럼 주변이 많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러한 친구 중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제일 친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



제이슨, 〈우정과 가을밤〉, 2019년, 캔버스에 유화

네그로스섬에서 찾은 보물

심흥석 암브로시오 신학생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인천교구 출신으로 2015년에 입회하여 현재 서울 가톨릭신학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네그로스의 아이들과 함께

작년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수련 과정)를 하는 동안 저는 골롬반 사제들이 과거 선교하였던 지역과 현재 선교하고 있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는데, 그중 성탄 방학 때 네그로스(Negros)섬에서 활동하는 브라이언 고어 신부님을 방문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 ‘골롬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름들이 떠오르시나요? 제주 이시돌 목장, 레지오 마리에,

현 해롤드 주교님 등등이 생각나실 텐데, 필리핀에서는 ‘네그로스 나인(Negros Nine)’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0년대 마르코스 독재정권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살인 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수감되었던 아홉 명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중에 두 명이 골롬반 사제(닐 오브라이언, 브라이언 고어)입니다. 닐 오브라이언 신부님은 돌아가셔서 필리핀에 묻히셨고, 브라이언 고어 신부님은 편치 않은 몸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도 네그로스에 살고 계십니다.



네그로스 나인(앞줄 왼쪽이 브라이언 고어 신부, 오른쪽이 닐 오브라이언 신부)

브라이언 신부님이 활동하는 곳으로 향하는 비포장 산길은 너무 험하고 위태로웠습니다. 사탕수수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오가며, 길을 움푹 파놓았다고 신부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길 위에서 노동자들을 가득 태운 큰 트럭이 낭떠러지를 옆에 두고 출렁이며 곡예를 펼치듯 달리는 모습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이 멀고 험난한 길을 우리 선교사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산 위에는 작은 공소가 하나 있고, ‘네그로스 나인 농장’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농민들은 지속 가능하고 자연 친화적인 농사 방식에 따라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커피도 재배하고 있어서 필리핀 네그로스산 커피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에는 연꽃이 동동 떠 있고, 밤하늘에는 별이 촘촘히 빛나고 있었는데, 반짝반짝, 깜빡깜빡, 마치 모스 부호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는 네그로스 골롬반 집 옆에 있는 조그만 공소에서 참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소가 가득 찼습니다. 신자들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있던 어린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저를 보면서 두 손으로 눈을 양옆으로 찢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들이니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미사 후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이 간식 시간에 하나둘 제 주변으로 쭈뼛쭈뼛 모여더니 같이 사진을 찍자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네그로스 현지 언어인 일롱고를 한마디도 몰랐지만 아이들이 하는 말 사이사이에 “BTS(방탄소년단)” “샤이니”라고 말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한국 아이들 가수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았지만, 한국 사람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뜻밖의 장소에서 제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인기를 다 누렸습니다. 그 후 브라이언 신부님은 저를 “한국 연예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두운 역사 속 고통과 슬픔, 위험천만한 환경에서의 고달픈 삶,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그림자들과 맞닥뜨릴 때마다,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되었는지 되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의 이면에서 의로움에 목마른 이들, 평화를 이루는 이들, 하느님이 창조하신 경이로운 세상, 사람들의 친절과 호의를 발견합니다. 영화에는 진귀한 보물을 찾아서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가들이 등장합니다. 선교를 이 ‘모험’에 빗댄다면, 선교사들이 발견하게 되는 진귀한 보물은 바로 이런 하느님 나라의 보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

30년 만에 다시 찾은 광주

매 제랄드(Gerard Marinan, 1908~1993) 신부



1934년 봄,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어 광주 북동성당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광주는 인구 육만오천 명의 큰 도시였다. 전라남도의 중심지이며, 도지사 관사, 도청 건물, 형무소가 자리 잡은 곳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형무소는 골롬반 선교사들에게 유명해졌다. 우리 신부 세 명이 간첩죄로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골롬반 사제 손 파트리치오, 서 아우구스티노, 서 오스틴은 항일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주: 1999년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했다.)

거리는 흙먼지 길이었다. 한국인이 하는 가게와 일본인이 하는 더 큰 상점을 지나가노라면, 사방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들이 느껴졌다. 아주머니들은 바쁘게 걸으면서도 힐끗 보며 지나갔고, 하얀 한복을 입은 의젓한 할아버지들은 망사 모자(갓) 밑으로 쳐다봤다.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을 줄줄 따라오던 어린아이들은 막상 내가 얼굴을 둘러보면 관심 없는 척했다. 거지 꼬마들은 더 용감했다.

빳빳하지 않은 머리카락과 상처투성이 몸으로 가까이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양반, 한 푼만 주소.” 거절하기 어려웠다.

외로움과 나를 향한 뜨거운 시선에 피로해질 때면, 시골에 가서 먼 산을 구경하곤 했다. 만약 미래를 알았다면, 그 산들이 서양인의 피로 물들 것이며 나의 동료 신부들이 거기서 학살당할 것을 알았을 텐데... 그때는 그저 낮은 산이었을 뿐이다. (주: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살해당한 일곱 명의 골롬반회 전쟁순교자를 말하고 있다.)

신자들의 친절함은 큰 위로가 되었다. 광주에 도착한 날, 역에 마중 나와 주었고, 그날 밤에는 거의 모든 신자가 다 모여 야외 환영식을 해주었다. 잔치와 노래, 열렬히 환영해 주는 인사말이 봄바람을 타고 (비록 알 아듣지는 못해도) 나의 귀에 들어왔다. 잔치가 끝나자 앞으로 머물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방 두 개가 있는 아주 작은 집이었고, 낮은 양철 지붕은 손에 닿을 정도였다. 나무판자에 올린 밀짚 매트리스가 어느 고급 침대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외로웠지만 행복했다. 다음 날 아침, 첫 미사를 봉헌했다. 새로 지은 목조 건물 성당은 매우 아담하고 깨끗했다. 한국인들은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앉아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의자는 없었다. 이 성당은 매우 익숙해져서 나중에 본당을 떠날 때 매우 서운했다.



현 헤롤드 주교(가운데)와 골롬반 사제들. 광주대교구 북동성당 영세식 후(1963년)

다시 찾은 광주, 지금(1964년) 나는 삼십 년 전 그날을 다시 생각한다. 얼마나 큰 변화인가! 시간이 흐른 것은 당연하다. 생각해 보면, 과거는 현재보다 더 진실인 것 같고 나는 섭섭하게도 과거를 찾는 것 같다. 나와 주임 신부의 작은 집은 이제 없고, 큰 이층벽돌집 사제관이 있다. 훨씬 큰 벽돌 성당이 새로 지어졌지만, 늘어난 신자 수를 생각하면 작을지도 모르겠다. 몇백 명이었던 본당 공동체가 지금은 두 개의 본당이 되고, 신자는 팔천여 명으로 늘었다. 현 헤롤드 대주교의 주교관, 광주신학교, 천주의 성요한병원과 수도원, 살레시오 고등학교, 시튼 수녀회가 광주에 들어와 있다. 한국 교

회의 눈부신 발전은 참으로 놀랍다. 그러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이런 상황은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다. 이천 년 전에 세워진 천주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들였다. 수많은 순교자가 낳고, 용기와 인내, 믿음의 역사가 새겨졌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의 수는 적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위하여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각자 그동안 선교에 대한 관심이 어땠는지 돌아볼 때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잘할 수 있는가? 많은 기도, 성소, 후원..., 필요한 것이 많다. ✝

번역
해설

노야곱 신부



1933년, 한국으로 파견된 첫 번째 골롬반회 선교사 10명 중 한 명인 매 제랄드 신부는 광주 북동, 춘천 죽림동, 원주 원동에 서 본당사목을 하며 1942년까지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1964년에 다시 광주를 방문하였을 때, 크게 발전한 한국 교회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외형적 성장뿐 아니라 복음 선포에 투신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 내적 성장도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1964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광주대교구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는 광주 교구에 방인 신부가 6명밖에 없었으나 지금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일했던 선교사로서 큰 기쁨이지요. 매 제랄드 신부가 변화한 한국을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지역별 문의 방법

CMS 자동이체의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인천,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후원회 월례미사

2019년 9월 - 12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	6일	4일	1일	6일	돈암동 골롬반본부	02-929-2977
인천	10일	8일	12일	10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11일	9일	13일	11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20일	11일	8일	13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6일	24일	28일	26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4일	22일	26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5일	23일	27일	-	자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26일	24일	28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7일	25일	29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9일	-	-	12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18일	16일	20일	18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제주	17일	-	19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15일	-	17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안산, 부산 9월 미사는 추석 연휴로 한 주 미뤄집니다.
- 서울 9월 찬양사도 유왕희 마태오 형제와 함께하는 특강과 찬양미사
10월 조성근 제노비오(9월 21일 서품) 새사제 주례로 봉헌합니다.
- 12월 목포, 순천, 전주, 광주 후원회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무료 피정 안내

주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도 양창우 요셉 신부(골롬반회)

서울 지역 11월 1일(금), 9시 30분 ~ 16시(신청 02-929-2977, 10월 30일 마감)
성령 찬양팀과 함께

전라 지역 10월 피정(신청 062-371-5823)
목포(22일), 순천(23일), 전주(24일): 10시~14시 30분
광주(25일, 10시~16시)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로반외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제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6,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교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로반외방선교회

2019년 젊은이 선교 체험

한국지부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대만에서 젊은이 선교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애들이, 무얼 좀 잡았느냐?”(요한 21,5)였으며, 남녀 청년 17명의 참가자들은 대만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동행하며, 다양한 문화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골롬반 회의 영성과 선교 사명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소명을 발견하며 지켜가도록 돕는 순례 여행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롬반회가 설립한 흑산성당, 문화재로 지정

8월 6일, 흑산성당이 등록문화재 제75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흑산성당은 골롬반회 진요한 신부와 신자들이 해변에서 구한 몽돌과 자재들을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직접 지은 곳으로 1958년에 봉헌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흑산도에 천주교가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장소이자 교육, 구호,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낙후되었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던 점에서 종교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 그리고 건축사적 가치도 크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958년 본당 축성식 때

현재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월레 미사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회(위원장 골롬반회 남승원 신부)는 2017년 11월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화해·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곤솔라따선교수도회, 도미니코수도회, 예수회, 작은형제회를 순회하며 미사를 드렸고, 올해 상반기는 골롬반회에서 봉헌하였습니다. 7월 15일 미사(사진)에는 북한이탈주민 여성교육생을 위한 ‘1박2일 가정문화체험’에 봉사자로 참여했던 골롬반회 후원회원들과 다른 봉사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왼쪽부터) 곤솔라따 한경호 신부, 삼위일체회 이영민 신부, 남승원 신부, 구속주회 윌리 신부, 예수회 김연수 신부

사제수품 50주년 축하합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오수성 신부가 올해 금경축을 맞았습니다(관련 글 16~17쪽). 오수성 신부와 같이 1969년에 수품한 사제 중에 한국에서 선교한 후, 지금은 본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민수 켈빈(사진) 신부와 노노엘 신부는 현재 고향 호주에서 일하고 있으며, 마브렌단 신부, 원하림 신부는 아일랜드, 인향성 신부와 이콜롬 신부는 미국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 대 제랄드 신부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매달 둘째 주일 오후(2시~5시)에는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생활 나눔, 복음 묵상 나눔, 선교사들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의 평신도선교사 성소와 식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소와 하느님의 부르심을 열린 마음으로 찾고 있는 남녀 청년(만 23세~38세)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선교에 관심 있거나 선교사의 삶을 고민하는 분들은 용기 내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 관심자 모임에 참여한 청년들과 코디네이터 노혜인 선교사(가운데)

광주대교구 발행 <빛고을>, 골롬반회 역사 조명한 글 연재

광주대교구 주보 <빛고을>은 8월 11일 발행호부터 “극동을 통해 본 우리 교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교구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광주교회사연구소 연구소장 최용감 신부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푸른 눈의 외국인 신부님들은 우리 지역에 살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루 써가며 사목활동을 하였고,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본국에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을 실었던 잡지가 <극동>이다. 1930년~1950년대의 대한민국과 교구의 역사를 바라보는 작업은 흥미의 차원을 넘어 감동까지 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1933년 한국에 첫 번째로 파견되었던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목포에서 피정할 때(1936년)

대만에서 온 손님들

석진옥 신부가 대만에서 함께 활동하는 이들과 7월 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대만 신주교구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센터 '사랑의집'과 '천사의집'의 직원과 교사로 골롬반 신학원에 머물며 한국의 곳곳을 찾았습니다. 꽃동네, 밀알재활원 등 장애인 기관을 방문하였고, 절두산성지와 춘천 죽림동성당 성직자 모지도 둘러보았습니다. 한 참가자는 "선교사들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훗날, 우리가 느낄 수 있었다."며 "새벽미사에도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고, 어린이들이 복사를 하면서 성소를 키워가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고명은 미리암 수녀 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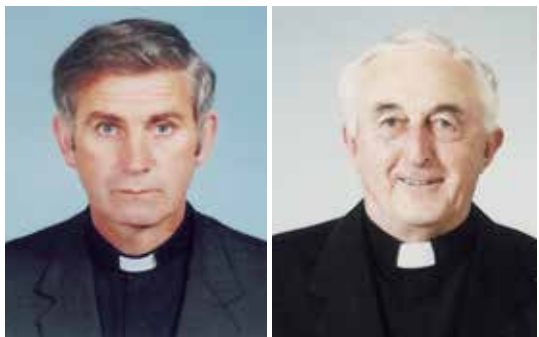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의 미리암(한국 이름 고명은, Cousins Mary Alice) 수녀가 8월 17일에 선종하였습니다(향년 79세). 아일랜드 골웨이에서 태어난 미리암 수녀는 1971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간호사·조산사로서 목포 성골롬반병원, 제주와 춘천의 골롬반의원 등에서 활동하며,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사랑을 쏟았습니다. 학대와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 치료를 거부당한 이들을 돌보며, 그들의 어머니요, 친구, 울타리로서 항상 함께하였습니다.



선종한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요셉(Joseph Dolan, 사진 왼쪽) 신부가 7월 7일, 고향 아일랜드에서 선종하였습니다(향년 84세). 1960년에 한국으로 파견되어 제주 모슬포, 함평, 소록도, 구리 성당 등에서 30년 넘게 선교하였습니다. 제주교구와 광주대교구에서 활동하였던 이 베드로(Peter Toohey) 신부가 7월 11일, 고향 호주에서 선종하였습니다(향년 79세). 그리고 7월 27일, 고마운(마우리시오, Maurice O'Connor, 사진 오른쪽) 신부가 선종하였습니다(향년 86세). 뉴질랜드 출신인 고마운 신부는 1961년 파견되어 부산교구,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등 6개 교구 13곳 본당에서 35년 넘게 사목하였습니다.



사제수품을 축하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봉헌하는 조성근 제노비오 형제의 사제서품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1요한 3,18)



조성근 제노비오

서품식

일시 2019년 9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광주대교구 염주동성당
주례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첫미사

일시 2019년 9월 2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주대교구 장성성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홈페이지와 SNS

한국지부 홈페이지 www.columban.or.kr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columbankorea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columban_korea
성소국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rvocation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포털사이트 www.columbanmission.org





남미 페루 쿠스코의 산악 지역에서 사목하는 골롬반회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2) 929-4841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벳다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